

외국인도, 미녀가수도 템플스테이 '강추'

외국인 만족도 91%, 내국인 81%로 높은편

한국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내국인-공익사업, 외국인-브랜드 강화

캐나다 여행업체 직원 크리스티나 워 씨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선운사에서 진행된 구미주 언론, 여행업체 종사자 템플스테이 팸투어에 참가했다. 그는 한국 사찰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스님의 겸손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며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본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가수 이효리 씨도 템플스테이를 '강력 추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먹은 밥그릇까지 물로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발우공양을 하니,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았다"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데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 성과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91.2%가 템플스테이를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내국인 역시

81.0%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만족도 지수도 높았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지수는 10점 만점의 8.33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외국인의 경우 다도(9.01점)가 높았으며, 내국인의 경우 스님과 대화(8.45점)를 가장 선호했다.

참가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참가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 중 22%는 '휴식과 일상의 재충전'을 참가 이유로 꼽은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관심이 템플스테이 참가의 주된 이유였다.

이는 내국인들은 내적인 갈등 해소와 행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템플스테이가 다르게 개발돼야 한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서는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는 현재 인식돼 있는



4월 5-6일 진행된 선운사 템플스테이 팸투어에서 참가 외국인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 대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브랜딩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는 단도박, 금연·금주, 폭력치유 등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공익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 프로그램도 치유, 테마, 문화체험, 휴식, 수행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별 고유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 연구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

업담당 지현씨는 "템플스테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공익사업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제시된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적극 수용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참가자 만족도 조사는 내국인 7천여 명, 외국인 8백여 명을 대상으로 29개에 대한 사찰 모니터링 평가,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식

“우정국로 안전 우리가 지켜요”

조계종자원봉사단, '우정국로 안전 지킴이' 운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생명존중 실천을 위해 교통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은 4월 6일부터 불자,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이래)

캠페인에 참가한 송경옥 자원봉사자는 “생각보다 조계사 일대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놀랐다”며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정국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것”이

라고 밝혔다.

교통 안전의식과 생명 존중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지킴이 캠페인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보행자들은 정렬신호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되며, 운전자들도 대기신호가 끝날 때까지 보행자들의 횡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자와 시민들의 교통 안전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일 기자



군포교 활성화 위한 수련회 열려

불교여성개발원, 20~21일

군포교 지원 현황과 포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수련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우리 함께 빌딩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군중특별교구 군법사단, 대학

단 등 군포교 단체들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군법당 지원 상황과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 정진희 포교사, 김영숙 포교사 등 일선 포교사들의 경험담과 군포교 콘텐츠 개발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희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101-2 신종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숲 해설가 양성 과정

4월 23일 초급 개강 ... 환경철학 등 교육 진행

숲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숲 해설가 양성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불교환경연대(대표 보선)는 '숲 해설가 양성 초급 과정'을 모집하고 4월 23일 첫 강의를 진행한다.

10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과정은 매주 월, 목요일 이론 교육과 토

요일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환경철학, 집단지도론, 생태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다.

수강인원은 35명이며, 참가희망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된다. (02)734-1915 신종일 기자

한국종교사회복지협, 서울시와 MOU 체결

종교 시설 활용해 도서관 등 건립

사회 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사)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근, 이하 한중사협)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4월 10일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회원 종단 소속 지역 종교시설의 저소득 아동 1천 명에게 장학금 3억원과 학습품 지원을 비롯해 △종교 시설 공간 활용한 데이케어 센터 설치 △종교계 나눔활동 연계와 각종 결연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종교 복지계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복지 네트워크가 구축,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전국 사찰 최초 평생교육원 생긴다

조계사, 평생교육원 수탁 ... 6월경 개원 예정

마인드 케어 지도사 등 마음 전문가 양성 초점

대학, 시민단체, 언론기관에서 설치된 평생교육원을 사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토진)는 3월 평생교육원 수탁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사찰로서는 최초로 개원하는 이번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기관으로 취업 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기관 개원은 지역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과 더불어 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탁을 추진한 조계사 부주지 의연스님은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불자와 지역민들의 인성, 사회, 재취업 교육을 사찰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이 확대된 만큼 이에 따른 포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인 만큼 운영 교육과정들도 ‘마음 치유’에 방점을 뒀다. 조계사 평생교육원이 중점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역시 마인드 케어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사 등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이다.

특히 이들 교육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학생 상담 등 심리 치료와 관련한 교육 지도사로도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 가족, 부부, 노인 등 계층 간 행복 캠프도 개설해 명상과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원 운영이 본격화 되면 향후 노숙인 인문학 강좌, 도시 마을 공동체 활동가, 바리스타 등 특별 교육 강좌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연스님은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 양성은 현대인의 심리 치유와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교대학 운영이 가능한 사찰이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생교육원 수탁 운영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불설대승금강경론佛說大乘金剛經論

불교의 참된 이치와 인과의 도리, 반야경의 진제眞諦를 구체적인 수행차제로 드러내는 간결하고 명쾌한 문답!

38가지 주제에 대한 문답을 통해 드러나는 금강경의 진수!

중국선종의 역사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저술!

중국선종사

중국선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적한 세계적인 명저!

이론과 선 체험이 결합된 대선지식의 독창적인 안목과 치밀한 분석!

이수덕/A5변형양장/124쪽/9,000원

인순저, 이부키아츠시 일역, 유진한역/A5양장/850쪽/50,000원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만화로 만나는 만해 한용운의 생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군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불교의 근대화를 이끈 불교사상가이자 위대한 근대 시인!

한용운의 삶과 사상을 만화적으로 재미있게 재구성!

글·그림 정수일 /B5컬러/198쪽/12,000원